

# “낭비성 예산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

### 우범기 전주시장, 11월 확대간부회의서 시민 민원 해결·취약계층 겨울나기·시설물 안전 점검 강조

우범기 전주시장(사진)이 연말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 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7일 출연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할 경우 내년 예산이 삭감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시행하는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실·국장과 기관장이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우 시장은 꼭 필요한 사업 의



남는 예산의 경우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각 실국별로 △가로수 간판 가림 △화단 위치 △정소 △시내버스 노선 등 시민들의 불편 민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짚어 해결 및

관리하고, 필요시 내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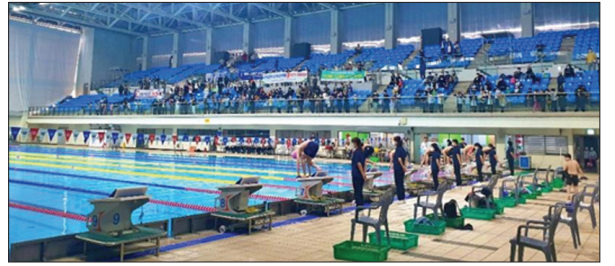
또한 우 시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주거취약계층과 어려운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행정을 중심으로 각 동 자생단체와 (재)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사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할 방안을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화재와 가스누출 등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

비하고, 연말연시 많은 시민이 밀집하는 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꼼꼼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우범기 시장은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 그간 해오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당당히 일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일해오던 방식을 과감히 개선해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제5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전'이 전주 유치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기여를 했다.

##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 활기

### 전주시시설공단, 4000여명 선수단 참여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전 개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제5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전'이 전주 유치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기여를 했다.

7일 구대식 전주시시설공단 이사장이 이끄는 전국 91개 공공스포츠 클럽이 최강 자리를 놓고 격돌한 '제5회 전국 스포츠 클럽 교류전'이 지난달 30일까지 사흘간 전주시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전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는 선수단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탁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배구, 무도, 체조, 농구, 스쿼시 등 10개 종목별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배드민턴, 수영, 탁구, 축구, 테니스, 배구' 등 6개 종목의 경기는 '덕진실내배드민턴장, 완산수영장, 화산체육관, 완산생활체육

공원, 한바탕국민체육센터' 등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열렸다.

특히 완산수영장은 지난 8월 12일 제41회 대통령배 수영대회에 이어 9월 24일 제8회 전국장애인수영대회와 이번 대회까지 올해 들어 3개의 전국규모 수영대회를 유치했다.

공단은 8일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스포츠 열기를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 사회혁신 한마당 '지극히 주관적인 백과사전' 열려

### 사회혁신 거대담론·다양한 의제·가치 '정의' 키워드로 공유

전주시는 지난 4일 사회혁신 전주에서 2022 전주 사회혁신 한마당 '지극히 주관적인 백과사전'을 개최했다.

이번 사회혁신 한마당은 사회혁신전주 개관 2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지극히 주관적인 백과사전'을 핵심 주제로 개개인이 가진 '정의'를 수집해 공유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또 개인의 생각과 관점을 정의해 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박해민 뉴웨이즈 대표(정치분야) △모종민 연세대학교 교수(로컬분야) △송대섭 서울대학교 교수(바이러스분야)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인생분야) 등 4개 분야 전

문가들이 지역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강연을 펼쳤다.

또 사회혁신전주 4층 미팅룸에서는 △비영리 생태계의 다음을 생각하다(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무업(無業)기간을 생각하다(정성신 다토크퍼니 대표)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일(김광현 파타고니아 팀장)을 주제로 강연자와 참여자가 양방향 소통하는

원탁 토크 콘서트 형태의 소규모 강연도 진행됐다.

이외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전주시민들이 애정하는 기억이나 사람, 물건, 사진과 이야기를 모아 전시하는 '덕과 사전' △사회혁신센터의 주요 사회혁신사업 참여팀들이 어떠한 의제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혁신 연결망 분석 전시'가 사회혁신전주 2층에서 펼쳐졌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겨울철 난방용품 기동전주택용소방시설 설치당부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 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는 각 세대·층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선 주기적으로 소화기 압력계이지가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전주덕진소방서 강남섭 방호구조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겨울철 난방용품 기동 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상지재활로봇 추가 도입

###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선정

전북대학교병원에 최첨단 상지재활 로봇이 새롭게 도입, 양질의 재활치료 플랫폼이 구축된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재활의학과 고명환 교수팀이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2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공공관료 지원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담당하게 되는 고명환 교수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임상연구 인프라와 재활치료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본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최첨단 상지재활 로봇 치료 장비인 가밀로(Camilo)를 새롭게 도입했다.

가밀로(Camilo)는 국내 의료가기 제조기업에서 개발 제작한 제품으로, 식



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가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특히 가밀로는 로봇의 팔을 환자의 손과 연결해 구동시키며 로봇이 상지(어깨, 팔)의 훈련을 환자기준 '수동, 능동, 저항모드'로 운동시켜, 동작가동 범위와 근력을 평가하고 맞춤형 훈련을 시킬 수 있다. 또 게임 콘텐츠를 접목해 재미있게 훈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지능력 평가도 가능하다. 일상생활 복귀 목적으로 '수평면, 경사면,

수직면' 훈련 모드 등을 갖추고 있다.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는 국립재활원의 지원으로 재활로봇특화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상지재활로봇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활로봇치료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뇌질환, 척수질환, 소아발달장애, 신경·근골격계 환자 등 다양한 환자에게 양질의 재활로봇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영태 기자

##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긴급 합동안전점검

### 전주완산소방서·임실군청·경찰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옥정호 출렁다리(임실군 운안면)을 방문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합동안전점검'을 했다.

7일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에 따르면, 점검은 이태원 압사사고 희생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출렁다리 시설이 용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전주완산소방서, 임실군청, 경찰, 한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해 진행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정호 출렁다리 운영현황 실태 확인 △출렁다리 케이블 장착부·간단·데크 안전시설의 견고성 △수난안전시설물 점검 △진입로 및 주차장 위험요소 제거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더불어 '화재시 대피, 심폐소생술 방



법, 119다매체 신고방법' 등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도 마련해 실시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도록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